

# 해설 시나리오

해설주제	시나리오
<p style="text-align: center;">갯바위 탐방지원 센터</p>	<p>이곳은 용암사~왕거암 구간의 시작을 알리는 “갯바위 탐방지원 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주왕산까지 가는 코스는 약 13.5km이며, 탐방지원센터를 시작으로 갯바위, 대궐령, 왕거암, 가메봉, 대전사까지 가는 코스입니다.</p> <p>밑에 위치한 마을의 대한 설명은 간단히 하자면, 행정명칭은 ‘용전리’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해발 740m에 위치한 갯바위산과 인연이 있는 마을이다 해서 ‘갯바위골’, ‘갯바위 마을’이라 불렀고, 그 외에는 갯바위에 들어서는 마을이다 해서 ‘입암마을’이라고도 불렀습니다.</p> <p>갯바위골 입구 위에는 ‘용암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곳은 원래 할머니 한분이 높은 산, 깊은 계곡, 우묵한 곳에 사는게 소원이셔서 30년동안 찾으셨다가 2002년에 이곳에 집을 짓고 홀로 사셨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홀로 이 암자를 관리하기에는 힘든점이 많았던 터라, 정들었던 암자를 서남사로 이전시키면서 “법화종 서남사 수도 용암사”라는 명칭으로 새로 창건되어 현재는 대웅전 불사가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p> <p>혹시 이곳까지 오시다가 보신 저수지가 기억나십니까? 현재 저수지가 들어서 있는 곳도 원래는 마을이었으나 마을에 큰 홍수가 나면서 그쪽에 있던 마을이 수몰되면서 지금의 저수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저수지는 갯바위에 올라서서 바라보면 다리미를 많이 닦았습니다.</p> <p>갯바위골 입구부터는 경사가 매우 심합니다. 올라가실 때 경사에 유의하시어 조심히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p>

<p><b>1차 전망대</b></p>	<p>이곳이 대궐령 1차 전망대입니다. 한번 전망대 앞에 서서 주위 경관을 보시겠습니까. 어떠십니까? 넓은 영덕의 경관이 다 보이시나요?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야생화와 나무들이 자라 있습니다. 특히 이 주변에는 ‘부처손’이라는 야생화가 많이 자랍니다.</p> <p>부처손은 부처손과에 딸린 여러 해살이 풀로서 우리나라 곳곳의 바위에 붙어 자라며, 겨울철에는 죽은 것처럼 오그라들었다가 봄철 비가 오면 금방 새파랗게 살아나는 생명력이 질긴 식물입니다. 부처손은 생김새가 부처의 손을 닮기도 했지만 자비로운 부처의 손길처럼 병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소나무 주변에도 많이 서식하는 야생화입니다.</p>
<p><b>갯바위 (2차 전망대)</b></p>	<p>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하며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다가 내쉬어보겠습니다. 상쾌한 꽃내음이 물씬 풍기지 않으십니까? 이곳 2차 전망대 주변에는 ‘바위구절초’가 자라는 곳입니다.</p> <p>여러분이 잘 아시는 들국화’라 부릅니다. 이 식물은 보통 가을에 많이 피는데, 가을에 피는 야생화들은 대화로 잘 알려진 구절초는 음력 9월 9일이 되면 9마디가 된다고 하여 ‘구절초(九節節 국화과 식물들인데, 이들은 모두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또 구절초는 선모초(仙母草)라 불리기도 하는데, 그것은 흰 꽃잎이 신선보다 더 돋보인다 하여 붙여진 명칭입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고 푸르던 들판이 누렇게 말라 가는 가을산야에 핀 하얀 꽃들이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바위구절초는 높은 지대, 바위에서 자라서 바위구절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p> <p>위쪽에 보이시는 바위가 바로 갯바위입니다. 갯바위는 바위3개가 나란히 붙어 있고, 특히 가장 앞부분에 위치한 바위가 멀리서 바라보았을 때 갯을 쓰고 있는 것 같다 해서 갯바위 또는 관암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바위에 공을 드리면 액운도 떨치고 소원도 이루어진다고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자주 찾아왔으며, 소문을 듣고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저 뒤편에는 바위와 바위 사이라고 해서 틈바위가 있는데, 그곳을 통해 올라가면 갯바위산과 갯바위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명소입니다. 하지만 위험성이 높은 곳이라 가는 것은 조금 꺼려지는 곳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길을 통해 보이시는 능선이 아까 말씀드렸던 ‘갯바위산’. 현재 명칭은 대궐령이라 불리는 해발 740m의 능선고지입니다.</p>
<p><b>대궐령 (3차 전망대)</b></p>	<p>이곳까지 올라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p> <p>이곳이 해발 740m의 갯바위산 정상이고, 현재 불리는 명칭으로는 대궐령 3차 전망대라 불립니다. 여기까지 오실 때 전망대 2개를 지나셨을테고 이곳이 마지막 전망대입니다.</p> <p>대궐령은 대관령이라고 부르다 지명이 바뀐 것이며, 옛날 중국의 주왕인 주도(周鑊)가 이곳으로 피신하여 성을 쌓은 후, 대궐을 짓고 머물다 청송 주왕산으로 넘어갔다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p> <p>날이 좋은 날, 이곳 전망대에 서서 저 멀리 바라보면 동해바다와 풍력발전소가 보입니다. 앞쪽에 보시면 이정표가 있는데, 이곳은 낙동정맥에 속한 길이며 삼거리로 나뉘어집니다.</p> <p>왼쪽 밑으로 가면 청련사가 나오는 길인데 그곳은 현재 탐방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이라 통제구간이며, 오른쪽 길로 가시면 긴 능선이 나오고 그곳은 지나면 해발 907m의 왕거암이 나옵니다. 이곳 전망대에서 쉬면서 심신을 달래고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p>

<b>왕거암 삼거리</b>	<p>이곳이 왕거암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 갈림길인 “왕거암 삼거리”입니다.</p> <p>탐방지원센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4.3km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길로 가면 느즈미재라는 능선이 나오며, 쪽 타고 내려가면 해발 875m의 명동재를 지나 846m의 먹구등이 나오며 그 밑이 바로 영덕 기사리에 위치한 내기사 저수지가 나옵니다. 옛날 신라 말년에 신라의 많은 충신들이 벼슬을 버리고 이곳으로 들어와 은거 했으므로 기사촌이라 했으나 현재는 그것을 생각한다하여 기사리로 고쳐쓰고 있습니다. 내기사는 기사리 안에 있는 마을이다 라는 뜻이며, 아직 탐방로가 개설되지 않은 구간이라 통제하고 있으며 여기서 거기까지의 거리는 약 6.6km정도입니다.</p> <p>이곳에서 정면으로 300m정도 저 전진하면 목적지인 왕거암에 도착하게 됩니다.</p>
--------------------	--

<b>왕거암</b>	<p>고생많으셨습니다. 드디어 이곳이 바로 영덕 탐방로의 정상인 해발 907m의 왕거암입니다. 앞에 왕거암 바위 옆에서 사진도 찍으시고 잠시 휴식을 가지겠습니다.</p> <p>이곳 왕거암은 주왕산에 얽힌 전설속의 주왕이 거처한 바위라고 해서 왕거암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주왕산 산군에서는 가장 높은 봉우리로 알려져 있으며 주위에 있는 잡목 때문에 조망을 보기가 어려운데 아쉬울 따름입니다.</p> <p>이 앞에 능선을 따라 가시면 주왕산으로 가는 코스가 나뉘어져 있는 가메봉 삼거리가 나옵니다. 능선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조심히 가셔야 하며 가메봉에 도착하시면 더 좋은 경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p>
------------	---